

박 호 성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물의 유동적 이미지 표현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 지 미

물의 유동적 이미지 표현 연구

박 호 성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 지 미

인 준 서

김지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일상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물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되는 유동적 흐름은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상상력과 감정을 갖게 한다. 이러한 상상력과 감정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비유됨으로 해서 추억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물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통하여 물의 유동적 이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물의 속성이라는 것이 무한함을 알게 되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물은 정해진 형이 없어 그것이 존재하는 환경에 따라 유동적 움직임을 보이므로 그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과 표현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이러한 대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이미지에 따라 금속의 면적(面的), 박적(薄的), 환선적(環線的) 느낌의 재료를 사용하여 적절한 표현방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형전개에 있어 금속은 물의 투과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분위기에 따른 물의 유동적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상상하도록 표현하였고, 물의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타의적 요소를 등장시킴으로써 조형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물의 분위기에서 느낀 본인의 주관적인 감성을 금속공예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미적 가치를 지닌 실내조형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였다.

또한 물의 분위기가 부여하는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 본연의 순수함으로 회귀하고, 물이 주는 아름다움이 재인식 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2
II. 본론	3
1. 이론적 배경	3
1) 물이 갖는 유동성(流動性)	3
2) 유동적 여건에 따른 물의 느낌	4
2. 조형전개	6
3. 작품설명	8
III. 결론	2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해질 녘	8
【작품 2】 바닷가에서	10
【작품 3】 와류(渦流)	12
【작품 4】 사북천(舍北川) 징검다리	14
【작품 5】 여름날 오후	16
【작품 6】 바람에...	18
【작품 7】 상상 속으로	20
【작품 8】 찰나	22

I. 서론

1. 연구목적

물의 유동적 다양함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심미적 소재로 존재한다. 물은 아침에 일어나 세안을 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화장실에 가고....., 저녁에 잠이 들기까지 인간의 일상 속에 항상 함께 한다.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에도 바닷가나 계곡을 찾을 만큼 인간의 삶에서 물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가스통 바슐라르¹⁾는 그의 저서 '물과 꿈'에서 물이 일으키는 상상력을 인간의 사고 가운데 가장 큰 가치부여작용의 하나 즉, 순수성에 의한 가치부여작용의 한 대상으로 보며 물이 정신을 정화시키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상이라 말하였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용하며 움직이는 물은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갖게 하는데, 물이 주는 시각적 자극은 인간의 상상력을 연상적으로 유발시킴으로서 감정을 무한의 세계로 끌어올린다.

지속적인 흐름, 파도, 파문, 반짝임 등에 의한 물의 이미지는 본 연구자에게 심리적인 동요를 주어 회상을 하게 되거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아름다움, 편안함, 고요함, 쓸쓸함, 긴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물에 의한 감성의 변화는 물의 속성으로 감지하여 물의 유동적 이미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하여 연구에 임하였다.

1)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 프랑스의 과학철학자. 상파뉴 지방의 바르쉬르 오브 태생. 구조주의(構造主義)의 선구자이며 시론(詩論)·이미지론(論)으로도 유명하다. 과학사·과학철학과 문예평론과의 연관성에 대해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디종대학 철학교수를 거쳐 소르본대학 교수를 지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양한 여건의 물을 통해 느낀 본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물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표현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물의 유동적 이미지를 심미적인 공예로 조형화시켜 감상자에게 상상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순수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물은 정해진 형이 없기 때문에 그 형태를 보려하는 일과 그 특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분명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함을 알기 위하여 물의 유동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물이 갖는 유동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물의 분위기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인 심상을 작품에 이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물 표면의 움직임으로 못, 개울, 호수, 바다, 그리고 유속의 여건에 의해 형성되는 물의 분위기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물의 움직임은 타의적요소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소 중 바람이나 지형, 중력은 작품전체 분위기에 포함 시켰고, 나뭇잎, 연꽃, 징검돌, 기울인 컵 등으로 물의 움직임을 다양화 하였다.

작품 제작에 있어 다양한 물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금속의 면적(面的), 박적(箔的), 환선적(環線的) 느낌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식, 타각, 구김 등 각각의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표현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1) 물이 갖는 유동성(流動性)

유동적이란, 사전적 의미로 동적인 이미지의 변화 가능한 성질을 띠는 것을 말한다. 규정되어있지 않아 얼마든지 덧붙여지고, 지워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정형적인 것을 뜻한다. 기계적, 또는 고정적이란 말과 반대되는 의미로 쓰인다.²⁾

물은 상온에서 색, 냄새, 맛이 없는 액체이며, 도처에 바닷물, 강물, 지하수, 우물물, 빗물, 온천수, 수증기, 눈, 얼음 등으로 존재한다.

물은 정해진 모양이 따로 없다. 둥글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낮은 곳을 향해 흘러내리거나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젖어 스며들기도 하고, 모여서 그 물체에 걸맞은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³⁾

이러한 물은 기온에 따라 0℃이하에서는 고체, 100℃이상일 때는 기체, 0℃이상과 100℃이하 일 때는 액체의 성질을 띤다. 고체일 때의 물은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있지만 모습이 쉽게 변형되지 않고, 기체일 때는 각 분자가 자유로이 이동하므로 움직임은 있지만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갖지 않는다. 액체일 때의 물은 일정한 부피가 있으나, 일정한 모양이 없는 유동적 속성을 띠어 '흐른다'는 것은 물의 가장 특징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온에서의 물은 일정한 부피를 가지되 그 고유한 형태를 가질 수

2) 한국어사전편집위원회, 『국어대사전(中)』, (서울: 삼성문화사, 1995), p2080

3) 구승희, 『회화에서 보여 지는 물의 이미지 표현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p6

없어 그것이 존재하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 물리적 한계와 형태가 결정된다.

물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항상 수평을 유지하려 하며 낮은 곳으로 향하려는 성질과 잠재적 위치에너지를 가진다.⁴⁾

2) 유동적 여건에 따른 물의 느낌

물의 움직임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이 존재하는 환경과의 관계 즉, 유동적 여건이 생길 때 발생하는데, 유동적 여건이라 함은 지형이나 바람, 혹은 진동 등의 타의적 요소가 있을 때를 말한다.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줄기는 계곡에서 시냇물이 되고, 강, 바다로 점차 큰 물줄기로 흐르게 된다.

여름에 계곡물은 다른 계절에 비해 유수량이 많아 수압이 높아져 물의 흐름이 빠르고 역동적임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같은 계절이라도 호수나 연못은 께어있는 물이라서 외부자극 없이는 물의 흐름을 거의 볼 수 없어 고요함, 혹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물에서 반사된 이미지는 거울에서 보여 지는 완전한 반사와는 달리 깊고 오묘한 신비감을 느끼게 하여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정적이 감도는 물 표면위로 소리 없이 울려 퍼지는 파문의 섬세하고 간단없는 움직임은 누구에게나 묘한 흡입력을 행사한다.'⁵⁾

바닷물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 파도를 일으키게 되는데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그 높이가 달라진다.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잔잔한 파도를 보다 보면 근원을 알 수 없는 향수가 느껴진다. 그리고 해변으로 밀려드는 파도에서 이는 물거품은 인어공주의 슬픈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며 쓸쓸함이 느껴진다.

4) 우에다이라 히사시, 오진곤 역, 『물이란 무엇인가』, (서울: 전파과학사, 1994), p35

5) 김영민, 『철학과 상상력』, (서울: 시간과 공간사, 1992), p74

이밖에도 바닥이 꽤어 물이 세차게 돌며 흐르는 소용돌이는 물의 위협성을 느끼게 하고, 물이 담긴 용기를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물의 찰랑거림은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이 외에도 물이 주는 느낌은 여건과 보는 이에 따라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2. 조형 전개

인간의 시각을 통해 물이란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분위기에 따라 아름다움, 편안함, 고요함, 쓸쓸함, 긴장감, 두려움, 향수, 동심으로의 회귀 등의 느낌을 갖는다. 이는 단순히 물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서의 느낌을 통해 비유적 사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물 표면의 움직임으로 못, 개울, 호수, 바다, 그리고 유속의 여건에 의하여 형성되는 물의 분위기이다.

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타의적 요소 중 바람이나 지형, 중력 등은 물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건에 어울리는 타의적 요소로써 연꽃, 징검돌, 소금쟁이 등을 등장시켜 물의 움직임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작품 제작에 있어 다양한 물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각각의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표현방법을 찾기 위하여 금속의 면적(面的), 박적(箔的), 환선적(環線的) 느낌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환선적(環線的)재료를 이용한 작업은 물결을 줄기로 이해하여 표현한 것이다.

박적(箔的)재료는 가공 시 구김에 의한 효과를 이용하여 물의 찰랑거리는 느낌을 표현하거나 금속의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인 물결을 표현할 때 쓰였다.

면적(面的)재료로는 물의 반사적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질감의 차이로 대상을 차별화 시켜 현실감을 높이고 화면을 풍부하게 함이다.

작품의 기능에 있어서는 물의 분위기가 주는 상상력과 아름다움에 의한 심미성을 조형화시켜 액자의 형태로 제작하거나 오브제로 제작하였다.

주재료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가공이 쉬운 재료인동을 선택하였고,

소금쟁이, 여치, 소라, 나비 등의 작은 대상물들은 은을 사용하여 여린 느낌을 내면서 주조색과 대비되게 강조하였다. 액자부분은 기능적 측면과 물의 느낌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철을 사용하였다.

3. 작품 설명



【작품 1】 해질 녘

490×400×20(mm)

copper, silver, brass, steel

【작품 1】 해질 녘

석양 질 무렵의 바닷가 정경은 잔잔한 물결이 바람에 따라 파장을 일으키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햇빛의 각도에 따라 여러 색을 띠는 운슬⁶⁾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은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물결의 반복된 생성과 소멸의 움직임은 근원을 알 수 없는 향수를 느끼게 한다.

타각기법으로 잔잔한 파도의 물결을 표현하였고, 하늘 부분은 자유로운 망치 터치로 잔영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갈매기는 화면의 안과 밖을 이어주며, 화면 아래에 사선으로 자리 잡은 갈매기는 생동감을 부여한다. 또한 원근감을 주기 위해 점증적으로 크기의 변화와 색의 변화를 주었다.

작은 섬은 향수의 근원지를 의미하며 녹색으로 착색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작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액자부분은 자연스럽게 얼룩진 붉은 갈색으로 착색하여 석양의 느낌을 화면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는 느낌이 들게 하였다.

6)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



【작품 2】 바닷가에서
690×480×25(mm)
copper, sterling silver, steel

【작품 2】 바닷가에서

여름이 다 지나간 바닷가는 지난여름의 북적임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홀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보다보면, 그 운율적인 움직임과 파도소리로 하여금 쓸쓸하고 고독한 감정에 더욱 빠져 들게 만든다.

홀로 남겨진 소라껍데기는 이러한 자아와 동일시되는 존재이고, 은으로 제작하여 배경과 대비되도록 하였다. 밀려드는 파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곡선으로 운동감을 주었고, 물결의 흐름대로 자른 판을 중첩시켜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을 표현 하였다. 모래사장과의 질감차이를 주어 현실감을 제고하면서 시각적 변화를 모색하였다.



【작품 3】 와류(渦流)
330×270×140(mm)
copper, sterling silver

【작품 3】 와류(渦流)⁷⁾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물은 부드러운 물과 난폭한 물의 두 가지 의미로 대별된다.⁸⁾

물은 인간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만큼 위험성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물의 공포성과 위기감을 형상화하였다.

나뭇잎 배와 그 위에 있는 여치는 물에 휩쓸려가는 급박한 상황에 빠진 나약한 존재이다.

환선을 둥글게 말아가며 땀을 하는 방식으로 소용돌이의 와선형 파문을 표현하였는데, 중간 중간에 요철모양으로 구부린 선의 웨이브는 물거품을 나타내면서 흐름의 방향성을 부각시킨다.

나뭇잎사귀 두 장으로 나뭇잎 배를 만들어 높이를 주고, 그 꼭지를 와선의 중심에 향하게 하여 시선을 집중시킴으로 긴장감을 더하였다.

잎사귀와 여치, 그리고 물의 표현을 각각 다른 질감과 색감으로 처리 하여 현실감과 정서적인 성격을 제고하였다.

7)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흐르는 것.

8) 가스통 바슐라르, 김현 역, 몽상의 시학, (서울: 기린원, 1989), p201



【작품 4】 사북천(舍北川) 정검다리

620×250×25(mm)

copper, sterling silver

【작품 4】 사북천(舍北川)⁹⁾ 징검다리

개울에 흐르는 물의 움직임은 바닥에 깔린 돌과 물의 수압에 따라, 그리고 장애물에 따라 다양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징검돌로 인하여 물의 흐름이 뒤틀리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길목이 좁아져 물살이 더 강해진다. 징검돌을 지난 물은 방금 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잔잔히 흐른다.

이러한 물살을 선적인 줄기로 그 흐름을 이해하여 조형화하였다.

환선을 물살의 움직임에 따라 구부리고 중첩시키면서 물아래 깔린 돌의 느낌과 어울려 흐르는 물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물의 흐름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체적인 물의 흐름에서 면적의 차이를 주었고, 물의 흐름이 꺾이는 부분에 징검돌을 배치함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선으로 표현한 물과 대비되도록 육지부분은 면으로 표현하였고, 중첩된 망치 터치로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풀을 표현하였다.

사북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물은 어둡게 착색하여 우울한 분위기를 부각시키게 하였다.

9) 강원도 정선 사북에는 1980년 사북탄광파업으로 인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탄광이 있었다. 탄광근처에는 탄광업으로 오염된 검은 물이 흘러서 사북에 사는 아이들은 개울을 그릴 때 까만색으로 그렸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목을 붙였다.



【작품 5】 여름날 오후

680×700×35(mm)

copper, sterling silver, steel

【작품 5】 여름날 오후

무더운 여름날 한적한 오후 호숫가의 물의 움직임은 끈적이는 출렁임을 보여 나른하고 한가롭게 느껴진다.

소금쟁이는 물의 표면장력을 이용하여 물위를 걷는다. 그러므로 소금쟁이가 놀만한 물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물임을 나타낸다.

물에 비친 수초 그림자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물은 무겁고 느리게 느껴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활기를 불어넣어 주지 못하고 나른한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수초 그림자의 흔들림과 착색의 음영변화로 물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빛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소금쟁이는 은으로 제작하여 배경색보다 밝아 가벼워보이게 하였다.

입체적으로 만든 수초는 생략적으로 표현하면서 녹색 계열로 착색을 하여 그림자와의 차별성을 주었다.

액자부분은 전체적인 색감을 고르게 착색하여 화면의 다양한 이미지를 정돈시키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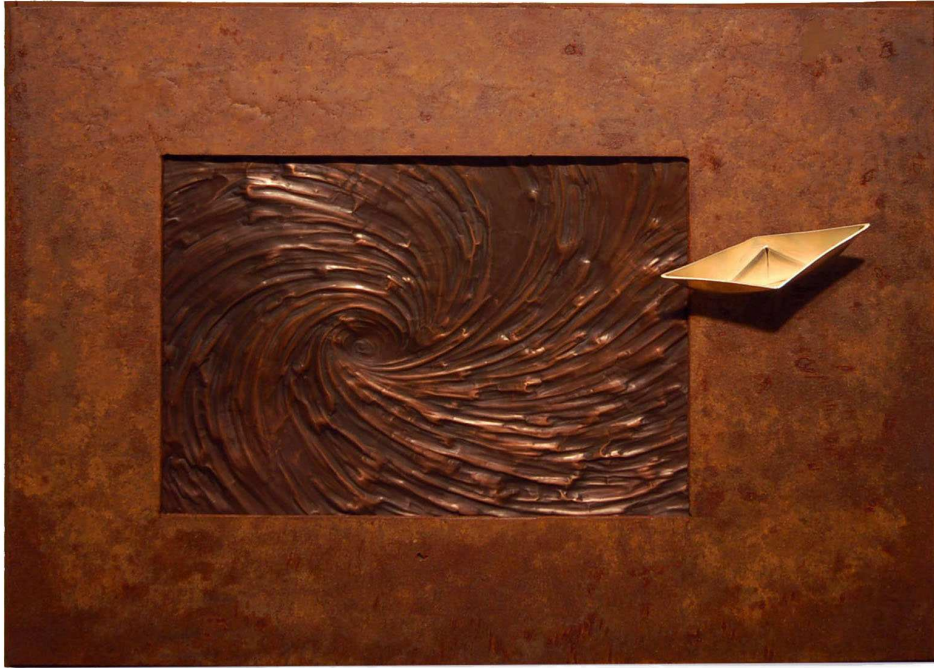
【작품 6】 바람에...
370×370×80(mm)
copper

【작품 6】 바람에...

바람에 의해 조용히 움직이는 수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물의 느낌은 평화롭고 정적이다. 수련으로 인한 잔잔한 파문에서 물의 깊이감이 느껴지고, 파문의 수평적 움직임이 안정감과 평화로운 느낌을 들게 한다.

‘바람’이라는 단어에는 기압의 변화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이란 뜻도 있지만, 바라는 마음이나 소망을 뜻하기도 한다. 수련은 불가에서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물에도 정화수의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 의미가 동일시된다.

소용돌이를 표현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환선을 둥글게 돌려가며 뿔을 하여 제작하였지만 의도적으로 선을 구부리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웨이브로 물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수련은 주름진 동박으로 제작하여 가벼운 느낌을 나타내었고, 열에 의한 은은한 색의 변화를 주어 단아함과 정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작품 7】 상상 속으로

500×380×40(mm)

copper, steel

【작품 7】 상상 속으로

물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회상하게 만들며, 이러한 회상은 인간의 사유 안에서 시공을 자유롭게 누리는 정신의 자유를 느끼게 한다.

세면대에 받아두었던 물을 흘려보내면 세면대 안의 물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소용돌이가 생긴다. 이러한 물을 바라보면 나도 물과 함께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통로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소용돌이는 상상속의 세계로 통하게 하는 통로이고, 소용돌이 밖의 액자 부분은 현실세계이다. 종이배는 동심으로 돌아가고픈 자아를 의미한다.

얇은 동박을 재료로 연성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소용돌이치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종이배는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기울어진 채 자리 잡아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운동감을 부각시켰고, 무광으로 은도금하여 종이의 질감과 색감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작품 8】 찰나
260×180×90(mm)
copper, silver

【작품 8】 찰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물을 엮질러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이 담겨있는 컵을 45°정도 기울이면 누가 보아도 그 후의 일을 예측하여 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 파장에 대하여 긴장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적 사고를 통하여 물이 곧 쏟아질 것 같은 긴장된 상황을 조형화하였다.

컵은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되 조형감을 주기 위하여 크기를 크게 제작하여 사선으로 기울였고, 그 안에 담긴 곧 넘칠 듯이 찰랑대는 물의 느낌은 박의 구김에 의한 질감으로 표현하였다. 떨어질 듯 멧힌 물방울은 중력의 방향대로 수직으로 길게 매달려 긴장감을 더한다.

컵 손잡이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나비는 컵을 쓰러트릴 수 없는 가볍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나비가 마치 컵을 쓰러트리기 위해서 앉은 듯한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시각적인 재미를 주는 요소이다. 은을 재료로 하여 나비의 가벼움과 연약함을 나타내었고, 기울여진 컵에 그림자를 주어 조형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형소재인 물의 유동적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분위기에 따른 물의 느낌을 본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지각하여, 심미적인 공예로 조형화하였다.

본 연구자가 느낀 물은 아름다움, 편안함, 고요함, 쓸쓸함, 긴장감, 두려움, 향수, 동심으로의 회귀 등이며 이러한 감정을 물 표면의 움직임과 물에 움직임을 일으키는 동적 요소를 통하여 물의 유동성을 유도하였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물의 움직임은 물 표면을 표현한 것으로 다양한 분위기에 따른 물의 유동적 형상을 표현하였다.

본 작업을 통하여 금속의 선적재료는 물의 방향성과 물결의 흐름을 표현하는데 적절하였고, 면적재료는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물의 반사적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알맞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박적재료는 가공 시 구김에 의한 효과가 물의 찰랑거리는 느낌과 유사한 느낌을 내어 타 재료에 비하여 시간을 줄이면서도 물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자는 물의 느낌을 표현함에 있어 금속의 재료와 기법적인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형과 색채적인 여건을 더하여 물의 유동적 이미지 표현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전개에 있어서 대상의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속성을 이해하고, 경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감상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추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물의 분위기가 부여하는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 본연의 순수함으로 회귀하고, 물이 주는 아름다움이 재인식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영민. 『철학과 상상력』. 서울: 시간과 공간사, 1996.
- 김춘일.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1999.
- 한국어사전편찬회편. 『국어대사전(中)』. 서울: 삼성문화사, 1995.
- 가스통 바솔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 서울: 문예출판사, 1980.
- 가스통 바솔라르. 김현 역. 『몽상의 시학』. 서울: 기린원, 1989.
- 우에다이라 히사시. 오진곤 역. 『물이란 무엇인가』. 서울: 전파과학사, 1994.

<학위논문>

- 구길우. 『물의 이미지를 통한 심상표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5.
- 구승희. 『회화에서 보여 지는 물의 이미지 표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 김건희. 『물의 이미지의 조형 의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2.
- 송관숙. 『유동적 형상에 관한 본인 작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6.
- 이지현. 『물에 대한 이미지를 주제로 한 표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 이화용. 『물결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조형작품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 정소영. 『물(水)의 이미지 표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 지수정. 『회상을 일으키는 물의 이미지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ABSTRACT

The expressive research about fluid images of water

Kim, Ji Mi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normal life, a fluid stream, which has created by various motions of water, would lead the viewers to obtain a lot of imagination and emotion. The imagination and emotion will be likened to real life's experiences and help the viewers to bring back the memorable images.

Therefore, I have been interested in the various emotion created by the water's motional images. After I have learned about the unlimited characteristics of water, I have decided to research on water.

Water does not have a set form, so shows various movements with its surroundings. Therefore, water has been a hard subject matter to find out its characteristics and ways to express about it.

In order to express this subject matter, I have been trying to find out the most appropriate ways to express the metal's characteristic images, such as surface, foil, and wire, with the most appropriate materials.

In this formative discovery, a metal cannot express the water's

permeability. Therefore, I had to express the water's fluid motion influenced by the atmosphere in order to help the viewers to imagine about the invisible parts. I also used the sources that create the water's movements in order to develop the water to become a model.

Therefore, this research would like to help the viewers to understand my own sense toward the water through this metal work. My metal model serves the role of indoor sculpture expressing the aesthetic value of water.

In addition, this research would like to give the chance to viewers to imagine about water's motion. I wish the viewers can re-think about the human's purity and recognize the beauty created by water.